

# 천년고찰에서 내 나무 기른다

## 내소사, 숲길 조성 나무심기 템플스테이

전나무 숲길이 아름다운 부안 내소사주지 진원가 '나무심기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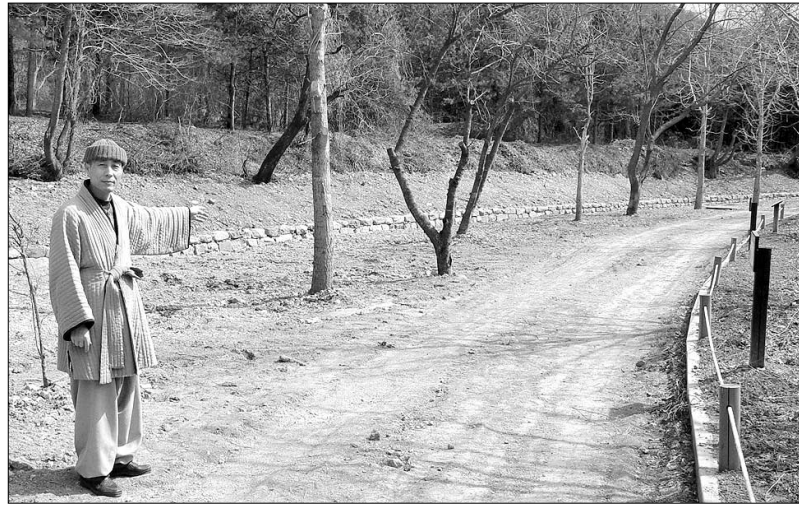
식목일을 맞아 4월 8-9일 양일간 내소사 경내에서 열리는 나무심기 템플스테이에서는, 가족이 함께 사찰체험을 하며 토종 양벚나무를 심는 행사가 진행된다.

나무심기 템플스테이는 첫째날 '불교와 나무, 인간'을 주제로 스님과의 대화가 진행되며, 다음날 천왕문 옆 수로를 따라 조

성된 산책로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갖는다. 이번에 심는 나무는 참가자의 명패를 달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내소사는 나무심기를 위해 왕벚나무 7-8년생 100그루를 마련했으며, 빠르면 내년 봄에 꽃이 피어 내소사에도 벚꽃길 이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나무심기 템플스테이를 주관하는 진호스님은 "사찰에서 하는 나무심기는, 자기 나무가 성장하는 것을 보며 꿈과 신심을



"나무가 자랄수록 불심도 커져가오" 부안 내소사 '나무심기 템플스테이' 일환으로 천왕문 옆 산책로에 백그루의 양벚나무가 심어질 예정이다. 사진은 산책로를 소개하고 있는 행사담당 진호스님.

함께 키우는 또 하나의 수행이다"며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한 "이제 사찰도 건물보다는 자연환경과 도량구구기 불사를 해야 한

다"며 "나무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소사는 해마다 단풍나무, 보리수나무 등 수종을 바꿔 숲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063)583-3035 이준엽 기자



## 생활 속 불교문화

### 송광 한지

최근 한옥, 한복과 함께 한지(韓紙)가 전통 웰빙 문화로 뜨고 있다. 다나무를 원료로 하는 한지는 수명이 천년을 간다고 하는 '신비의 종이'이기도 하다. 한지는 책, 창호지에서 옷, 생활용품, 한지공예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불가에서는 경전, 불화, 불상 등 한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큰 사찰에서는 매년 대량의 한지가 소요되고, 스님들이 한지를 직접 생산했다. 따라서 한지는 사찰을 중심으로 발전, 보급되어왔던 것이다.

수백 년간 명성을 이어온 전주한지도 완주 송광사가 자리한 송광한지를 으뜸으로 친다. 특히 송광마을에서 생산하는 한지장판은 아직까지도 전국

송광마을 이장 이행교(56)씨는 "예전부터 마을 어른들이 척박한 땅에서 먹고살기 어려울 때 송광사 스님들이 종이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줬다"며 송광 한지의 유래를 설명한다. 병자호란 때 팔도도총섭으로 승군을 이끌며 남한산성을 쌓은 벽암대사가 송광사 주지로 있으면서 마을사람들에게 종이제조법을 전수했던 것이다.

전국 최고를 자랑하던 송광 한지도 비닐장판과 현대문물에 밀려나기 시작했다. 앞선대 달린 격으로 환경오염 규제도 송광천에서 더 이상 다나무를 짤 수 없게 되었다. 밭에 있던 다나무는 배어졌고, 마을사람들도 하나둘 떠났다. 최근 들어 새집 증후군이 사회문제

## 조선시대 벽암대사 주민들에게 제조법 전수 자갈밭에 다나무 가꾸고 송광천서 찌고 말려



수백년간 우리네 생활용품(창호지, 책 공예 등)에 활용되어 온 전주 송광한지. 천양제지 초지장이 한지를 뜨는 모습.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송광사는 평지가림이지만 인근에 위봉산, 진안 고원 등 커다란 산이 에워싸고 있다. 토양이 척박해 흙보다 자갈이 많다. 다행히 인근의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은 한지를 생산하는 천혜의 자원이 되었다. 그래서 고려 때부터 송광마을 자갈밭은 다나무 무성했다.

마을사람들이 직접 다나무를 채취하고 송광천에서 찌고 곱질을 벗겼다. 그리고 뜰에 짚어 풀어헤쳐진 다나무 곱질을 마을사람들이 손수 한 장 한 장 떼었다. 송광 한지의 시원은 송광사에 두고 있다.

화 되면서 다시 한지장판이 각광을 받고 있다. 예전만은 안되지만 2인1첩으로 구성된 한지장판 제조장이 4-5곳으로 늘어 명맥을 잇고 있다. 그것도 양지를 가져다가 물가부로 잔 풀로 3장씩 붙여 말리는 단순작업이다.

송광마을 아래에는 국내 최대규모의 한지제조공장(천양제지)이 들어섰다. 이곳에서는 물에서 한지를 뜨는 초지장인 7명을 보유하고 전통한지, 기계한지 등 다양한 한지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산에 밀려 전량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천양제지 최영제 사장은 "송광마을 밭에 다나무를 심어 전통 송광한지를 복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엽 기자

## 남녘 사찰, 봄맞이 행사로 '두근두근'

성큼 다가온 봄을 맞아 남녘 사찰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보성 대원사는 4월 1일-5월 13일까지 49일간 '제1회 대원사 벚꽃축제'를 개최한다.

영산재 공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4월 1일 인천 영산회 공원에 이어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경기 전주 부산 밀양 광주 등 7개 영산회가 출연해 공연을 펼친다.

### 대원사-벚꽃축제, 송광사-사찰체험

### 미항사-참사람의 향기 특별수행

또한 벚꽃이 만개하는 4월 9일 대원사 하늘호수(구품연지)에서 '벚꽃축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061)852-1755

송보종찰 송광사도 4월 8일, 15일, 29일 3회에 걸쳐 '봄맞이 사찰체험'을 갖는다. 이번 사찰체험에는 소원성취 발원

문 쓰기, 봄 꽃길 산책 등 희망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061)755-0107

해남 미항사도 4월 15일-22일 8일간 묵언, 오후복식, 참선, 수행점심, 다도 등의 수행이 진행된다.(061)533-3521

광주 정토회는 봄맞이 특별강좌 <법성개> <신심명>강의를 마련하고, 오는 4월 5일-5월 31일(매주 수요일)까지 정토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의 영상강의로 진행된다.(062)511-8990

이준엽 기자

### 충북불교대학 입학식 법회

청주 용화사 부설 충북불교대학(학장 각)은 제12기 신입생 입학식을 3월 7일 본교 대법당에서 봉행했다.

이날 축사에서 각의 스님은 "불자로서 교리공부는 물론 활발한 사회 봉사활동을 펼쳐 실천 불교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혜철 대전 충북지사장

### 선정회, 충용사 장병 120명 수계

충북 승가모임 선정회(회장 광혜)는 2006년 3월12일 37사단 호국 충용사에서 훈련장병 120명에게 수계의식을 봉행했다. 이날 수계식에는 진천어머니불자회에서 함께하고 떡과 초코파이 단주 등을 선물하고 위문했다. 혜철 대전 충북지사장

### 청원 석문사, 사물놀이 초청 강좌

충북 청원 석문사(주지 혜진)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장선진 강선자(직지 홍보단 부단장) 선생을 초청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주민을 대상으로 사물놀이와 국악을 지도한다. 앞으로 국악강좌반은 교도소 등 위문공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혜철 대전 충북지사장

## 광주 불교 방송

BBS FM 89.7 MHz  
www.kjbbbs.co.kr

###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 스리랑카 노동자 초청법회

### 원각사, 와치싸라 스님 법문

도심포교당에서 외국인들만 모이는 특별법회가 열린다.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는 3월 26일을 '스리랑카의 날'로 선포하고 대웅전에서 와치싸라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광주에 거주하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법회는 스리랑카 전통의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초청되는 와치싸라 스님은 스리랑카 노동자들의 정신적 지주로, 안전에 외국인 노동자 전용법당 '파하보디선원'을 개원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스리랑카 노동자들은 법회에 이어 전통음식을 나누며 뒤편이를 펼친다.

이번 법회를 공동 주최하는 한빛 외국인 노동자 센터(소장 고영순) 관계자는 "현재 광주에 외국인 노동자가 3천여 명이 있으며 이 가운데 60%가 동남아 불교국가에서

온 노동자이다"며 "각 나라별로 노동자들이 편하게 법회를 볼 수 있도록 도심사찰과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62)223-3168 이준엽 기자

### 군부대 대법회 잇따라 열려

### 장성 무각사, 호국 관음사



지난 3월 12일, 광주 전남에 소재하는 군법당에서 대규모 법회가 잇따라 열렸다.

장성 상무대 무각사(법사 정우)는 이날 대웅전에서 '학군 초급장교(ROTC) 환영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포병학교장 김진항 소장교 육사 법당 후원회 간부, 대학을 졸업하고

소위 계급장을 단 초급장교 900여명이 참석했다.

31사단 호국 관음사(법사 범망)도 8회에 걸쳐 열리는 '고승 및 명사 초청법회'를 시작했다(사진).

이날 첫번째 법사로 초청된 대종사 조실천은 스님은 법어에서 "경전읽기와 끊임 없는 정진으로 당당한 젊은 시절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음사 초청법회는 불자가수 송춘희 포교사(3월 19일), 화계사 주지 성광 스님(26일), 조계종 전 포교원장 암도 스님(4월 2일), 법륜종 종정 정각 스님(9일), 무각사 주지 광민 스님(16일), 전 조계종 신도회장 박완일 법사(23일), 용화사 주지 수진 스님(30일) 법회가 이어진다. (062)571-7832 이준엽 기자

# 제106회 범어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안내

귀의삼보 하옵고...

병술년 새봄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정산 범어사는 1천 3백여년 전 의상스님께서 창건하신 이래 여러 대덕 스님들이 주석하신 유서 깊은 도량이자 전통적인 계법(戒法)을 전하는 계율 근본도량이기도 합니다.

보살계란, 대승보살들이 받아 지니는 계율로써 십중대계(十重大戒)와 사십팔경계(四十八經戒)를 조목조목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 보살이 그 현실사회에서 구현하여야 할 실천덕목이기도 합니다. 경전에 의하면 [계(戒)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으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범어사 금강계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하오니, 여러 불자님께서는 수회동참하시어 무량한 복과 지혜를 닦고 생사해탈의 법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傳戒師: 瑞海 興教大和尚

삼화상  
전계대화상 서해흥교  
갈마아사리 해월선래  
교수아사리 제월통광

칠증사  
존증아사리 서림대성  
서암해관·일운담연  
정사도근·태인몽산  
보륜지정·금우인각

- 입재: 불기2550년 4월 10일 (음 3월 13일)
  - 회향: 불기2550년 4월 12일 (음 3월 15일)
  - 장소: 범어사 금강계단 (보제루)
- 3일간

- ◎ 동참금: 5만원 (₩50,000)
- ◎ 계좌번호: 국민은행 939701-01-142121 (예금주: 범어사)
- ◎ 접수: 원주실 051)508-3636, 3721  
중무소 051)508-3122~5  
범어사 각 말사(암)

禪刹大本山 金井山 梵魚寺